전남대 조성용 교수 지경부장관 표창

전남대 조성용 환경공학과 교수가 최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지역 신에너지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용확대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유광종씨 홍조근정훈장

유광종 광주도시공사 경영본부장이 지난 4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전수받았다. 유 본부장은 38년 공직생활을 하며 시정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조선대 정윤아씨 한문대회 전국 장원

올해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조선대에 입학한 정윤아(39·한문학과 1년)씨가 성균관과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11회 전국한문실력경시대회에서 대학·일반부 전국 장원을 차지했다. /채희종기자 chae@

윤영달 춘향제전위원장 몽블랑 후원자상

전북 남원시는 5일 윤영달 춘향제전위원장(크라운 해태 회장)이 독일 몽블랑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11 몽블랑 문화예술 후원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의 전통음악 발전과 저변확대, 재능 있는 국악인 발굴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수상하게 됐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증진대회

(사)광주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5일 광주시 남구 문예회관에서 '2011 광주시 지적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다.

1부 '제10회 전국 지적장애인 자기권리주장대회 지역예선'에서는 엠마우스복지관, 광주선명학교, 광주선광학교, 우리자리그룹홈 소속 지적장애인 15명이 발표자로 나와 장래희망과 소망 등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2011 지적장애인 작품전시회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3부에서는 김후진 광주시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북구지부장의 사회로 유공자 표창과 함께 지적장애인 권리선언문을 낭독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인사

◆목포대

▲학생입학처 학생지원과장 장봉섭(서기관) ▲사무국 시설과장 전주모(기술서기관) ▲제3행정실장 박국선(행정사무관)

"고지서 대신 행복 담긴 편지 더 많아졌으면"

영암우편집중국 여성집배원 정숙희씨

"제가 전달하는 편지 한 통에 함박웃음 짓는 어르신들을 보면 피로가 싹 달아납니다. 항상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집배원이 되고 싶습니다."

영암우편집중국 정숙희(여·49) 집배원은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집배원 1604명 가운데 단 3명뿐인 여성집배원 중 한 명이다.

정 집배원은 지난 2003년 3월 6일 평범한 가정 주부에서 여성의 몸으로는 흔치않는 집배원이라는 직업을 택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영암 학산면, 미암면, 삼호읍 일대 700세대에 편지, 공과금고지서, 등기, 택배 등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정 집배원은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하는 남편 때문에 오토바이 하나는 남들보다 잘 탄다고 자부해왔는데, 우연한 기회에 집배원이 돼 오토바이와 함께 일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임시직이었는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계약직을 거쳐 지난 2005년 정식집배원이 됐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시골 마을의 특성상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시와 달리 대부분이 단독 가옥이라 우편물 주소와 수신자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헷갈리는 주소와 세대주, 가족 구성원은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약도를 그렸고 구성원들 이름을 적고 외웠다.

무더운 여름 오토바이를 타야 했고, 추운 겨울 꽁꽁 언 도로를 달리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또 명절과 연말이면 밀려드는 택배로 몸이 열 개라도 부족했다.

늦깎이 집배원 생활이 그렇게 9년이 흐르면서 지금은 어느덧 베테랑 집배원이 됐다. 지금은 우편물 수신자 이름만 봐도 어느 마을 누구인지 알 정도다.

처음에는 여성 집배원이라고 의아해 했던 주민들도 지금은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준다. 글을 못 읽는 어르신들을 위해 편지를 대신 읽어주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까지 꿰뚫을 정도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만도 1500여 개에 달한다.

정 집배원은 "한해 두 해 친해지다 보니 이제는 다들 가족 같고 우편물이 안 오면 왜 자주 안 오냐며 꾸짖는 어르신들도 계신다"며 "늦게 시작했지만 집배원이라는 직업을 택한 게 정말 잘한 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편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정 집배원은 "처음 집배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손자·손녀, 그리고 자녀들이 보내는 편지를 자주 전달했는데, 최근에는 공과금, 벌금 고지서 등이 대부분이다"며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사회봉사단 '코리아 핸즈'가 떴다

순천제일대 등 700여명 참여 연말까지 활동

최근 순천제일대 산업안전관리과 1학년 동기 17명은 올 여름 신나는 일을 기획중이다. 신안 섬에 거주하는 어르신댁에 전기 배선 수리, 가스와 보일러 점검 등 각종 안전을 지켜드리는 사회 봉사단에 참여하면서다. 버스를 타고 2시간, 또 배를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먼 길이지만 전공을 살려 봉사할 수 있는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설레기만 하다.

순천제일대 학생들처럼 올해 전남과 경기 등에서 활동하게 될 대한민국 사회봉사단 '코리아 핸즈(Korea Hands)' 단원들이 5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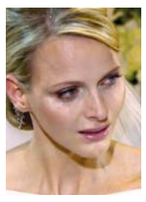
코리아 핸즈는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재능 나눔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봉사자의 경력 개발 및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국가사회봉사 모델이다.

올해는 18~30세 청년 단원 500여명과 만55세 이상 전문직 은퇴자 위주의 시니어 단원 200여 명 등 총 7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도시 빈곤 지역과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청년단원들은 서비스 소외 도서 지역을 방문해 독거 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되고, 시니어단원들은 전문직 은퇴자 4~5명이 팀을 구성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아동에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게 된다. /연합뉴스

눈물의 웨딩 모나코 왕비 3번 탈출 시도



모나코 공국 군주인 알베르 2세 대공(52)과 지난 2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린 샤를렌느 위트스톡(33)이 결혼전에 고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3번이나 도망치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프랑스 일요신문 르 주르날 두 디망셰는 3일자 신문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5월 파리로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위트스톡이 결혼을 피하기 위해 남아공 대사관으로 달아나려 했다고 전했다.

왕실은 그녀를 설득해 지난 2일 세계 유명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예정대로 결혼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한국계 여성, 美 핫도그먹기대회 챔피언

한국계 여성이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로 열린 핫도그 먹기대회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AP통신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소냐 토머스(한국명 이선경·44)씨는 뉴욕 코니아일랜드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핫도그 먹기대회에서 10분 만에 핫도그 40개를 먹어치워 2위를 11개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매년 독립기념일에 열리는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남녀 구분없이 치러졌으나 올해 처음으로 남자 부문과 여자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독거미'라는 별명의 토머스는 1990년대 후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로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2003년부터 각종 먹기대회에 출전해 우승트로피를 챙겨오고 있다.

왜소한 체격의 토머스는 지난해 뉴욕주 버펄로에서 열린 먹기대회에서 12분 만에 181개의 닭 날개를 먹어치워 우승했으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할라피뇨(멕시코 고추) 먹기대회에서는 274개를 먹어 준우승했다. /연합뉴스

내방

▲한택희(전라남도교육청 행정지원국장)씨 ▲주용식(〃 교육홍보담당)씨 ▲김성준(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씨 ▲이민수(광주세무서장)씨 ▲신규석(서광주세무서장)씨 ▲이주한(북광주세무서장)씨

국립공원의 야생화

'나라를 구한 꽃'…피를 멈추고 엉기게 해

<54> 엉겅퀴

엉겅퀴는 50~100cm정도로 곧게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피를 멈추고 엉기게 한다고 해서 엉겅퀴라고 이름 붙여졌다.

엉겅퀴에 따라붙는 대표적인 수식어는 '나라를 구한 꽃'으로, 13세기 덴마크와 스코틀랜드 전쟁 당시, 급습하던 덴마크 병사가 엉겅퀴를 밟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자, 스코틀랜드 군사들이 이를 눈치 채고 공격 해 승리하게 된 후 국가의 상징되었다. 또한, 엉겅퀴훈장은 영국에서 가장 유서 깊고, 명예로운 훈장 중 하나인 점을 미루어 보아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이라 할 수 있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조선대병원 어린이재단에 성금 전달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왼쪽에서 다섯번째)은 5일 오후 신관 4층 병원장실에서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왼쪽에서 네 번째)에 15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조선대병원 제공〉

전남지방우정청 '사랑나눔 바자회'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진)은 5일 지역 녹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여름용품 마련을 위한 '사랑나눔바자회'를 펼쳤다. 이날 바자회는 직원들이 기증한 의류, 가방, 주방용품 등 300여점이 판매됐다.

롯데百 광주점-동부소방서 내지마을에 소화기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동부소방서는 5일 광주시 동구 내남동 내지마을 회관에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행사를 진행하고 가정용 분말소화기 80여대를 기증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동학·염옥련씨 장남 경훈군 김문희·최홍임씨 장녀 효선양=9일(토) 낮 12시 30분 서울 한국광고 회관 2층 아펠가모 그랜드볼룸.

▲유생근·박춘남씨 차남 태정군 조성현(청송건설㈜·도곡스파랜드㈜ 대표이사)·이매자씨 삼녀 서연양=10일(일) 낮 12시 서울 역삼동 와이타워컨벤션 5층 그랜드홀.

동창·동문회

▲일우회(회장 조동수) 월례회=8일(금) 낮 12시 대서양꽃게장백반(구 시청 홈플러스 옆) 062-943-2553.

▲월풍회(회장 조동수) 월례회=11일(월) 오후 6시 30분 무등회관 062-525-0033.

부음

▲임원택씨 별세 채기·채환씨 부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김신홍씨 별세 이정호·연자씨 모친상=발인 6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알림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용으로 음향장비(엠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원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등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소년자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자. 062-953-6101.

▲복부비만, 피부관리 셀프무료 체험=광주시 북구 우산동 말바우 시장 보광 한의원 3층 나비엘 우산갤러리. 062-261-5875, 011-9614-3348.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정중원 님 (여/82세)
子/子婦 : 정황수 / 김정화, 복식 / 김인자, 희정 / 윤정희
女/壻 : 정은자 / 이종갑, 은숙 / 양동수 미성 / 강종철
• 호실201호 • 발인:7월 6일
• 장지:대전현충원 • 연락처:227-4381

故임복임 님 (여/71세)
子/子婦 : 김기열 / 채 순, / 이매실, 기준, 기만 / 김수경, 기철 /
女/壻 : 김명희 / 윤요한
• 호실301호 • 발인:7월 6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82

故고창현 님 (남/40세)
未亡人 : 윤주미 子 : 고은호
兄弟 : 고경아, 진아, 창범
• 호실402호 • 발인:7월 6일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27-4314

故박재선 님 (남/77세)
未亡人 : 조기덕
子/子婦 : 박경진 / 김분자
女/壻 : 박정아, 정순 / 허종식
• 호실401호 • 발인:7월 6일
• 장지:화순동면 • 연락처:227-4383

故정성욱 님 (남/88세)
子/子婦 : 정충길 / 이진영, 중길 / 최경애
女/壻 : 정경자 / 조승기, 경란 / 박정칙, 경애 / 오통렬, 미애 / 김동범, 경미 / 정 일
• 호실101호 • 발인:7월 6일
• 장지:해남북일 • 연락처:227-4385

마음까지 편안한 孝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남길림 님(여/75세)
子/子婦 : 한기승/박임선, 기영/장윤희, 기준/남양희
손자 : 한원석, 범석, 민석, 윤석, 효석 손녀:한송희
• 발인:7월 7일 09시30분
• 장지:해남 화산면 선영 • 연락처:250-4413

故 김재순 님(여/90세)
子/子婦 : 이세동, 춘동/김순복, 갑동/김덕희, 철동, 형동
女/壻 : 이성자/이재천, 성심/전현식
• 발인:7월 6일 00시00분
• 장지:영락공원(강진 병영) • 연락처:250-4407

故 양 덕 님(여/50세)
子/子婦 : 김도곤/최미옥
夫 : 김용철
• 발인:7월 7일 08시30분
• 장지:남원시 운봉읍 • 연락처:250-4405

故 박인홍 님(남/65세)
子/子婦 : 박주진/김연화
女/壻 : 박경희/박수홍 未亡人:양미자
• 발인:7월 7일 08시00분
• 장지:영락공원 • 연락처:250-4409

故 윤영식 님(남/76세)
子/子婦 : 윤병국/홍은진, 병철/양수정
未亡人 : 조춘자 女 : 윤정은
• 발인:7월 6일 09시00분
• 장지:영락공원(함평나산) • 연락처:250-4410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